

생활말씀 12월

2025년 12월

“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”

(이사 52,10)

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. 곧 자신들의 땅과 왕, 그리고 성전을 잃었습니다. 따라서 자신들의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. 그 하느님께서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던 분이십니다.

그런데 한 예언자의 목소리가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.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곧 다시 한 번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(이스라엘의 역사에) 개입하실 것이고,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끄시어, 그들이 사막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. 그리고 그토록 기적과 같은 사건에 대해, 땅 위의 모든 민족이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.

“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”

오늘도 뉴스에는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. 일자리와 건강, 안전, 그리고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들, 무엇보다도 특히 전쟁과 빈곤 때문에 미래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의 소식이 있습니다. (이러한 빈곤은 그들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후 변화 때문에 촉발되기도 합니다.) 또한 자신들이 살아갈 땅도, 평화도, 자유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.

이것이 우리에게서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전 세계적인 비극의 한 장면입니다.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을까요? 이런 상황에서 ‘희망한다’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의 선포는 여전히 (이 시대를 살아가는)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.

“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”

이 예언자의 말은, 하느님께서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에서 활동하심을 드러내 보여 줍니다. 또한 이러한 구원 계획의 표징들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눈을 뜨라고 당부합니다. 실제로 이 말씀은 이미 다음과 같은 곳에서 그 효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곧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어느 선생님에게서, 정직한 기업가와 청렴한 공무원에게서, 서로에게 충실히 신의를 지키는 부부의 모습에서 이 말씀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 어린이를 안아 주는 장면에서, 간호사의 다정하고 친절하고 행동에서, 인내할 줄 아는 어느 할머니에게서, 평화로운 방식으로 범죄에 맞서는 사람들의 용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따뜻이 맞아 주는 공동체에서도 이 말씀의 효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

“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”

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무장 해제된 모습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그 순진무구함 속에서,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현존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가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, 우리는 이러한 그분의 현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
“... 오늘날 세상은 투쟁 논리를 만들어 내어, 가장 강하고 가장 교활하며 가장 파렴치한 자들의 법을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때로는 모든 것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마비된 듯 보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주어야 할 답은 ‘이웃 사랑’입니다.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입니다. ... 이는 마치 거룩한 온기가 그 빛을 발산하며 파도처럼 퍼져 나가, 사람과 사람 사이, 그룹과 그룹이 이루는 관계에 스며들어 감으로써 사회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.”¹

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지금이 바로 길을 나설 때입니다. 젊은이, 어르신, 가난한 이, 이민자, 실직자, 노숙자, 환자 혹은 수감자 등 보살핌의 손길과 함께해 주는 이웃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에게 다가가기 위해, 단호히 한 걸음을 내딛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.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온유하면서도 강력하게 현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.

오늘날 우리에게서 여러 경계선이 존재합니다. 경계선이란 물론 지리적 국경선을 뜻하기도 하는데, 종종 이 국경선이 장벽이 되거나 전쟁이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전선戰線이 되기도 합니다. 한편 문화적이고 존재론적 경계선도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모든 경계선을 넘어 이 희망을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. 이 밖에 젊은이들이 자주 모이는 여러 디지털 공동체에서 공격성과 고립감 그리고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

이렇게 희망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콩고의 시인 앙리 부쿨루Henri Boukoulou가 쓴 다음과 같은 시구절과 흡사합니다.

“오, 거룩한 희망이여! 바람의 절박한 흐느낌 속에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시의 첫 구절들이 새겨진다. 그리고 내일은, 바로 그 희망이리니!”²

“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”

레티치아 마그리

포콜라레운동 국제 본부 「생활말씀」 편집 위원

-
1. 끼아라 루빅, 1985년 5월 생활말씀, 단행본 『생활말씀 Parole di Vita』, 파비오 차르디 엮음. (끼아라 루빅의 저작들 제5권), 치타누오바 출판사, 로마, 2017년, 이태리어 원본 323-324 쪽 참조.
 2. 공저 『아파트르트헤이트(apartheid, 인종 격리 및 차별 정책)에 반대하는 아프리카의 시인들』 참조, 제1권, 아르코(Arco) 출판사, 밀라노, 2003년 발간.

Focolare contacts in Japan E-mail: tokyofocfem@gmail.com

www.focolare.org/japan 東京: 03-3330-5619/03-5370-6424

www.focolare.or.kr 長崎: 095-849-3812

포콜라레(마리아사업회) 도서출판박난로 인터넷서점 <http://www.focobooks.com>

서울 본부: 여 (04607) 서울 중구 다산로 21길 27-9(신당동)/전화 02-2232-2460

서울 본부: 남 (04002)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9-9(서교동)/전화 02-332-1010

